권두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행정확립

朴 鍾 世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관(觀)'도 큰 변화가 있었음을 느낀다. 배가 고파 칡뿌리를 캐먹던 보릿고개 시절과 약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야기를 향수와 회한의 감상으로 느끼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경제사정이 나빠졌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식·의약 생활은 과거에 비해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탄생될 정도로 국민의 기대수준도 그만큼 높아졌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탄생되었으니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영위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행정'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확실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거 우리의 식·의약 행정을 보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이 크게 사회문제화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발표를 해도 파문이 계속 확대되는 것이 상례였다. 라면의 우지사용, 징코민사건 등 우리 기억에 남아 있을 법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일도 있고 최근의 우유파동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러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루 빨리 정착시키고 예방책을 강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루 빨리 정착시키고 예방책을 강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된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여 국제화·선진화하여야 한다. 안전성과 거리가 있는 규제위주의 기준·규격은 폐지하고 안전성 관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계에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며, 소비자는 더욱 철저히 보호해 나가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개방화에 대비하여 CODEX, ICH, WHO 등 선진국 기준에 조화되도록 관련규정을 과학화·국제 규범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WTO체제에 따른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 유해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활용하며 검사업무의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셋째, 국민의 식·의약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응용가능한 제제의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산업관련 기반연구의 지원을 통해 생산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조사연구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포배양의약품, 유전자재조합 식품·의약품 등 첨단유전공학기술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신약개발 및 생명공학의 육성지원 등을 통해 제약산업의 기반기술을 크게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식품의약품안전청 발족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 분담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인력·예산·장비 등의 중복투입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지역성이 있는 음식업소 등 위생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토록 하여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달,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을 둘러싼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요인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식품·첨가물 및 신약·신물질이 개발되고 있어 식·의약 행정이 관리해야 할 영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모든 직원은 급변하는 식·의약 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써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나라 식·의약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